

### 고보야마 (御坊山) 3 호분

이코마군(生駒郡) 이카루가초(斑鳩町) 다쓰타키타(龍田北)에 소재하는 종말기고분으로 호류지(法隆寺) 중문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850m 떨어진 위치에 있다. 택지 조성 중에 우연히 발견된 3 기의 고분 중 하나로 고분 자체는 현존하지 않는다. 매장시설은 큰 화강암을 도려내 만든 뚜껑돌(蓋石)과 바닥돌(底石)을 조합한 횡구식석곽(橫口式石槨)이고 석곽 내부에는 옷칠도관(漆塗陶棺)이 매납되어 있었다. 도관 내에 남아있던 인골에서 피장자는 신장 150cm 전후의 남성으로 연령은 14~15 세로 생각된다(『青陵』 58).

횡구식석곽의 크기는 뚜껑돌이 길이 275cm, 폭 158cm, 두께 97cm, 바닥돌이 길이 298cm, 폭 144cm, 두께 56cm, 막음돌(閉塞石)은 폭 105cm, 높이 86cm, 두께 35cm 이다. 석곽 내부의 넓이는 세로폭 225cm, 가로폭 71cm, 높이 52cm 이다. 각 부재는 절석가공(切石加工)된 것이 아니라 자연석을 이용했고 석곽의 안쪽 면을 평탄하게 가공하고 있다. 석곽 안쪽에는 회반죽(漆喰)을 발랐는데 2015년도 재조사로 뚜껑돌과 바닥돌의 접합 부분에도 회반죽을 발랐던 것이 판명되었다.

옷칠도관은 바닥부에 3 열로 7 개, 총 21 개의 다리(脚)가 붙어 있는 관 몸통(棺身)과 관 뚜껑(棺蓋)이 짝을 이룬다. 크기는 관 뚜껑이 전장 156cm, 폭 47.2cm, 높이 25cm, 관 몸통이 전장 157cm, 폭 47.8cm, 높이 25cm 로 관 몸통의 안쪽 치수는 전장 146cm, 폭 36cm, 높이 20cm 이다. 관 뚜껑의 단측면에는 지름 6.5cm 정도의 둥근 구멍이 있고 소성(燒成) 후에 마개(陶栓)로 막고 있다. 또 관 뚜껑에는 균열 보강으로 생각되는 길이 13.7cm, 폭 7.3cm 의 췌기 모양 동판(楔形銅板)이 끼워져 있다. 관 다리(脚部)는 소성 후에 수평으로 많이 깎아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관 몸통의 양 단측면쪽 각부가 가장 길게 남아 있는 편인데 길이는 5cm 정도밖에 없다. 소성 후에 깎아낸 흔적은 관 몸통의 상단부나 관 뚜껑이 관 몸통과 맞물리는 부분에도 보인다. 이것은 도관을 석곽 내에 매납했을 때 높이의 여유가 5cm 밖에 없는 점에서 도관의 높이를 낮게 하기 위한 가공이었다고 생각된다.

도관 내에는 삼채유개원면연(三彩有蓋円面硯)을 피장자의 머리 오른쪽(오른쪽 귀 쪽)에, 붓대로 생각되는 유리관을 피장자의 머리 왼쪽(왼쪽 귀 쪽)에 부장하고 있었고 피장자는 호박제(琥珀製) 베개에 눕혀져 있었다. 이 유물들은 국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매우 귀중하다. 삼채유개원면연은 뚜껑의 최대지름이 6.7cm, 연당(陸)의 지름이 3.5cm 정도 밖에 없는 작은 것으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모양에서「수적각(水滴脚)」이라고도 불리는 벼루다리(脚部)가 10 개 붙어 있다. 태토나 유약, 수적각벼루의 유행 시기 등으로 7 세기 초두에서 중경에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당삼채로서도 초기 제품으로 여겨진다. 유리관은 수(隋)의 대업(大業) 4년(608)에 매장된 이정훈(李靜訓) 묘의 부장품에 유사품이 있는 점에서 삼채유개원면연과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박재품(舶載品)일 가능성이 크다. 또한, 고보야마 3 호분의 부장품과 옷칠도관, 횡구식석곽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.